

■ 겨레의 창

## 〈겨레말큰사전〉의 이상을 바라보며

— 김석득 / 연세대 명예교수

모든 일에는 '완전'이란 있을 수 없다. 그 완전의 이상을 위하여 늘 끊임없이 나아가는 최선의 노력이 있을 뿐이다. 이 나아가는 길에 이루어지는 매듭은 매우 귀중한 열매이며, 그 열매는 더욱 열매를 가깝게 잇달아 이어 맺는 뿌리를 깊일 것이다. 이러한 뿌리 깊이기와 열매 거두기의 이상은 씨뿌림에서 비롯함이니, 이 이상을 미리 깨치고 씨를 뿌림은 이상 실현을 위한 큰 힘이라 하겠다.

'겨레'란 본디 옛글에 쓰이던 '같은 부류'의 뜻이(〈신증유합〉, 〈소학언해〉 등에서, '결에') 확장되어 '민족'과 아울러 쓰인다(최현배, 〈조선 민족 쟁쟁의 도〉(1926) 맨 끝 쪽에서 보인 '배달 결레'의 '결레'(겨레)가 그것이다.). 그러므로 사전에서 겨레말이란 일정한 때와 열안(공간)을 이루는 역사의 같은 뿌리(같은 핏줄)를 가진 겨레 얼의 말을 상징한다. 따라서 '겨레말큰사전'의 펴기는 겨레얼 문화인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요, 이루어야 할 최대의 이상이다. 본디 하나인 우리 겨레말은 주어진 오랜 때와 상황이 다른 열안에서 일어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차이가 매우 크다. 이 차이를 극복하고 본디의 겨레말을 통일로 이끌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겨레의 사명을 안고 2005년부터 '겨레말큰사전' 펴기를 시작한 것은, 그 완전의 이상 실현을 위한 매우 슬기로운 판단이었다. 겨레의 같은 바탕(동질성) 이해와 겨레말의 힘의 철학의 신념 아래 그 동안 이룩한 배달겨레 있음(존재)의 까닭을 드러낸 업적은 크디크다. 쌓은 업적 그것은 다음 단계와 또 다음 단계의 아무진 성취로 이어갈 한 큰 뿌리힘이 될 것이다.

여느 일처럼 사전 일에도 완전이란 없다. 끊임없이 흐르는 때에 따라 변하여 마지않는 정신문화 세계의 한 단계를 끊어 정리하는 일은 완전을 위한 최선의 이상일 뿐이다. 사전의 일은 늘 이러한 역사 발전의 이상의 단계를 계속 밟는 것이다.

'겨레말큰사전' 펴내기는 오늘과 내일의 겨레 역사의 사명을 안고 나온 새로운 과제이다. 인류의 지적 문화가 발전하여 마지않는 오늘, 더욱 새겨지는 한 뿌리 의식의 열안의 범주 앞에서, 이미 시작 때부터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던 터이지만, 벌써 내년을 10년으로 바라보는 때 점(시점)에 이르렀다. 이제 그 성과를 기리면서 몇 가지를 되짚어 보는 것도 의미 없는 일은 아닐 것이다. 이 되짚기의 과정은 여느 일에서나 완전의 이상을 위하여 늘 있어야 하는 맞음·안맞음의 되살핌(검산)의 구실과 같은 것 이리라. 이는 다 잘 아는 것을 다음에 생각의 한끝으로 되돌아 다져 밝히는 까닭이다.

첫째, 새로운 사전의 동기와 목적을 늘 되새겨 보자. 그 동기와 목적은 겨레 얼 문화 역사의 창의적 생산성 본부로서의 밀힘이기 때문이다.

둘째, 말본(문법)의 통일된 이론 체계를 되돌아 살피자. 이것은 겨레말큰사전이 완성을 이상으로 삼아, 그 거쳐야 하는 사전의 기본적 기술 체계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말본의 체계는 이에 따른 맞춤법 문제, 표준말 문제, 들온말(외래어) 표기 문제들과 같은 이름 끈 관계에 있다. 이 문제를 되짚는 까닭은 새로운 범주의 '겨레말큰사전'이 지난날의 이 원칙을 되짚어 보면서 때와 열안의 눈을 넓혀야 하는 새로운 상황 앞에 섰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에 과정이 무르고 약하거나 자칫 과학의 짜임새가 흐트러진 사전은 교육이나 지식 정보화나 세계화에 창의 생성의 힘이 약해진다.

셋째, 형태(의미)론의 이론으로 늘 비쳐 볼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열안을 넘어 온갖 분야에 다양하게 변화 발전한 새로운 개념의 말 분포 상황을 통일로 이끄는 데는 오늘날 발전한 형태론과 의미(인지)론의 잣대를 요구한다. 새 낱말의 낱덩이 분석과 그 올림말 자격을 계속 되짚어 보아야 하는 따위는 그 한 보기이다.

넷째, 넓은 자료의 다시 보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편찬 작업 과정에서 많은 자료와 분석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 자료는 많을수록 겨레의 참된 속뜻 얼(심층 정신)이 드러나는 법이다. 곧 겨레의 속뜻 얼의 참 값은 자료의 다양성을 따르는 '따름수원리(함수원리)'가 적용될 것이다. 편찬회에서는 선각들의 앞서간 사전들, 지역을 달리하나 역사상 권위 있는 대표다운 연구 기관을 통한 사전들, 겨레 있는 곳곳의 시골말 연구서나 궁직한 방언사전들, 토박이말 사전, 국어학(옛말, 일반언어학) 사전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전문 사전들, 그리고 그동안 겨레말 관계의 전문 학자들이 서로 주고받고 합의한 참고 자료들을 많이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것들을 사전 혼에 맞도록 갈라(분류) 고름질함으로써 겨레 문화의 창조 생성의 상징인 '겨레말큰사전'으로 선을 보이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이에 필요한 것은 흠 없는 완성에 대한 마음 조림이 아니라 완성을 위한 이상을 보고 주어진 최선의 힘을 다한다는 성실함과 끈기와 느긋함이다.

다섯째, 올림말(전문, 일반)이나 말본범주의 뜻풀이에서는 겨레의 열안에 든 관련 분야의 도움은 물론 일반 이론의 발침(의미론, 사회심리학, 문화인류학, 인지론, 문학말의 창의론 인식, 등)의 발전한 관련 분야 이론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는 겨레말의 특성상 그 낱말의 풀이와 쓰임의 보기 글에는 바른 뜻의 다양성이 녹아나야 하겠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전이야말로 겨레 문화의 속뜻 이해와 그 바른 정보(과학)화와 그리고 그 참된 겨레 문화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는 힘이 될 것이다.

'겨레말큰사전'의 사명은 크다. 이 사전은 겨레의 머제를 바탕으로 오늘 그리고 내일의 창의 지혜의 생산성 본부가 될 것이다. 부디 이 사전이 겨레의 슬기 창조 힘과 겨레말의 정보과학화와 세계화가 가깝게 열매를 맺는 깊은 뿌리가 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신념으로 이 일에 몸 마음을 바쳐 수고하는 여러 전문가와 그 밖의 관계자 여러분에게 고마운 뜻을 마음으로 보낸다.

■ 김석득

연세대 명예교수로 한국 언어학회 회장과 파리7대학 동양학부 교수를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국어구조론」, 「우리말 형태론」, 「우리말 연구사」 등이 있다.



■ 뜻풀이 깊고 더하기

## 시치미를 떼다

\_ 김수현 / 겨레말큰사전 선임연구원

어떤 단어를 뜻풀이할 때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기존 사전에서 그 단어의 풀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다. 뜻풀이가 녹록지 않은 단어일수록 기존 사전의 뜻풀이는 꽤 유용한 정보가 된다. 그런데 가끔은 기존 사전의 뜻풀이를 보고 더 혼란스러워지는 경우가 있다. 율림말 <시치미>를 찾았을 때가 그러했다. 사전을 보고 난 후 <시치미>를 뜻풀이할 때에, 이것을 다의어로 처리할 것인지 동음이의어로 처리할 것인지를 한참 고민했던 기억이 있다. 기존 사전의 뜻풀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b>표준국어대사전</b></p>	<p><b>시치미</b> [명]                  ① 매의 주인을 밝히기 위하여 주소를 적어 매의 꿈지 속에 매어 둔 네모꼴의 뿔.                  ② 자기가 하고도 아니한 체, 알고도 모르는 체하는 태도.  <b>시치미(를) 떼다[따다]</b> 자기가 하고도 하지 아니한 체하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체하다.</p>
<p><b>조선말대사전(1992)</b></p>	<p><b>시치미이</b> [명]                  매의 주인을 밝히기 위하여 주소를 적어 꿈지우의 털속에 매어두는 네모난 뿔.  <b>시치미02</b> [명]                  자기가 아는 일을 모르는척하는 행동.  <b>시치미(를) 떼다[따다]</b> 자기가 하고도 짐짓 안한체하거나 알고도 모르는체하다.</p>
<p><b>연세한국어사전</b></p>	<p><b>시치미</b> [명]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거나 하고도 하지 않은 척하는 짓.  <b>시치미(를) 떼다</b>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거나 하고도 하지 않은 척하다.</p>
<p><b>고려대한국어대사전</b></p>	<p><b>시치미</b> [명]                  매의 임자를 밝히기 위해 주소를 적어서 매의 꿈지 털 속에 매어 둔 네모난 뿔을 이르는 말.  <b>시치미를 떼다[따다]</b> (사람이) 매를 훔친 사람이 시치미를 떼어 내고 자기 매인 것처럼 행세한다는 뜻으로, 자기가 하고도 짐짓 하지 않은 체하거나 알고도 모르는 체하다.</p>

《조선말대사전(1992)》에서는 <시치미>를 동음이의어 곧, <시치미1>과 <시치미2> 둘로 나누어 처리하였고,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다의어로 처리하고 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일까? 먼저 <시치미를 떼다>의 어원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시치미를 떼다>의 어원은 ‘고려 때, 어떤 사람이 사냥매에 붙여 놓은 이름표인 <시치미>를 떼어 버리고, 자신이 그 매의 주인인양 행세했다.’는 설이다. 이는 거의 정설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설(說)이 국어학적으로나 어원학적으로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의구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확한 출처와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사전의 뜻풀이에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조선말대사전(1992)》에서는 <시치미>를 <시치미1>과 <시치미2>로 나누어 동음이의어로 처리하고 있다. 이는 <시치미>의 어원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이 어원(또는 설?)을 수용하여 뜻풀이에 적극 반영하고 <시치미>를 다의어로 처리한 것이다.<sup>1)</sup>

추후 개정된 《조선말대사전(2007)》에서는 <시치미>의 뜻풀이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있다. 처음에는 동음이의어로 처리하던 것을 개정판에서는 명사 <시치미>와 관용구 <시치미를 떼다> 둘만으로 구분하여 처리한 것이 눈에 띈다. 명사 <시치미2>의 용법과 의미를 관용구 <시치미를 떼다>의 용법과 의미로 수정한 것이다. 북측에서도 통설이 되다시피 한 <시치미>의 어원을 수용한 결과로 생각된다.

<p><b>조선말대사전(2007)</b></p>	<p><b>시치미</b> [명]                  매의 주인을 밝히기 위하여 주소를 적어 꿈지우의 털속에 매어두는 네모난 뿔.  <b>시치미(를) 떼다[따다]</b> 매의 꿈지에 주인이 단 표식을 떼어 누구의 것인지 모르게 하고도 모르는체하였다는데로부터 《자기가 하고도 짐짓 안한체하는 행동》을 이르는 말.</p>
----------------------------	--

그러면 <시치미>의 뜻풀이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시치미>의 어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기는 하지만, 남북이 동일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음이의어보다는 다의어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파생의미인 명사 <시치미02>를 보이지 않고 관용구 <시치미를 떼다>만 제시할 수도 있겠으나, “너 왜 자꾸 시치미야!”와 같은 말이 빈번히 쓰이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기본의미와 함께 보이는 것이 좋겠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p><b>시치미</b> [명]                  ① 매의 주인임을 밝히려고 이름이나 주소 등을 적어서 매의 꿈지깃 속에 매어 다는 꼬리표.                  ② 하고도 안 한 체하거나 알고도 모르는 체하는 짓.   건달은 점점 목소리가 커졌다. ... 다른 사람들의 {시치미에} 울분이 났다. 《배수아: 그 사람의 첫사랑》 / “안 그런 것처럼 {시치미는}? 앙큼한 게...” 《윤림호: 비석골의 실화》  <b>시치미(를) 떼다[따다]</b> (남의 매에서 시치미를 떼어 내고 자기가 그 매의 주인인양 행세한다는 데에서) 자기가 하고도 하지 않은 체하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체하다.   눈치를 보면 원욕이 한 것이 틀림없는데 자기가 하지 않았다고 {시치미를 떼니} 난감하기 짝이 없었다. 《김명수: 이육사》 / 향근이는 전혀 모르쇠로 {시치미를 따고} 있으나 속으로는 어딘가 안착되지 못하고 있다. (《기수》)</p>
---

※ 이 글은 글쓴이의 견해로, 《겨레말큰사전》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혀 둔다.

1) <시치미>의 어원에 대해서는 이강로(1992), 조항범(2009)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며, 남측 교과서(중학교 국어 1-2)에서도 동일한 어원으로 소개되고 있다.



## 살찌다

· 김완서 / 겨레말큰사전 책임연구원

59, 64, 70, 76.

이상은 20살 이후 내 몸무게의 변천 과정이다. 59는 군대 입대 당시의 몸무게이고, 64는 제대했을 때의 몸무게이다. 그 당시만 해도 내 몸무게가 70이 넘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다. 64가 내 몸무게의 절정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대학 4학년 때인 26살에 내 몸무게는 70에 도달했다.

불과 2년 사이에 6킬로그램이나 살이 찐 데에는 콜라가 지대한 공헌을 했다. 공부를 핑계로 아침에 도서관에 도착하자마자 콜라를 들이키고, 점심 먹고 입가심으로 또 콜라를 들이키고, 오후 3시 정도에 잠을 쫓는다는 핑계로 콜라를 들이켰다. 이렇게 하루에 콜라 3캔씩을 약 일 년 정도 매일 먹었다. 콜라 먹고 찐 살이어서 그런지 내 살은 물렁하기가 그지없다.

대학 졸업하면서 70에 도달한 난, 여전히 콜라를 끊지 못하고 제법 마셨다. 야식도 톨툴이 먹고, 그리하여 결혼 즈음에는 74에 이르더니 결혼하고 일 년 후 정확히 76이라는 숫자에 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살찌다 보니 몸이 퍼지다 못해 배만 볼록하게 나온 전형적인 'D'자형 체형을 갖게 되었다. 예전의 사진을 찾아보면 임신부 저리 가라할 정도로 배가 현저히 튀어나온 것이 있다.

'살찌라'라는 말이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는 덕담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살졌네'라는 말을 들으면 다이어트를 결심케 하는 자극제로 들리거나 욕으로 들린다. 이렇게 세월에 따라 다르게 느끼지는 '살찌다'는 남과 북 모두 사용하는 말이다. 또한 남과 북이 사용하는 의미도 같다.

표준국어대사전	조선말대사전
<b>살찌다</b> 몸에 살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다.	<b>살찌다</b> 몸에 살이 많아지다.

남과 북, 의미에서는 차이가 없다. '살찌다'는 의미에서 차이가 아니라 '사용 대상'에서의 차이이다.

- 기르는 닭 중에서 {살찌고} 큰놈은 언제나 집을 제일 많이 떠나있는 광훈의 몫으로 차례지군 했었다. 《백현우: 젊음을 자랑하라》
- 철쭉꽃이 붉게 타는 산비탈이 가까이 보이는데 그 너머 숲밭속에서는 {살찐} 장썰 무리가 한가로이 먹이를 찾아 미리저리 오가며 빨간 머리를 기웃기웃하였다. 《량경찬: 호수가의 저녁》
- 림성철이 소로 판대기 써레를 치고 있었다. {살찐} 황소를 미리저리 능숙하니 몰아가면서 바닥매를 고루는데 그 솜씨가 실농군 짬 찌 먹을 정도다. 《리성식: 행복의 방아》

위의 용례는 모두 북의 것으로, 살찐 대상이 '닭, 장썰, 황소'로 동물들이다.

용례를 통해서 확인한 바와 같이 북은 '살찌다'를 주로 동물에게 사용하는 반면에 남은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두루 사용한다.

그럼 북에서 동물이 아닌 사람에게는 어떤 표현을 더 많이 쓸까? 남쪽 사전에도 있는 말이지만 실생활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표현이 하나 있다. 그것은 '몸이 나다'로, 북에서 사람에게는 '살찌다' 대신에 '몸이 나다'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한다.

- 사십 줄에 들어서면서 {몸이 나기} 시작한 그는 실한 량 어깨를 알릴 듯 말 듯 기울거리면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리화: 출근길》
- 맹물만 먹어두 이렇게 {몸이 나는} 걸. 《한기석: 꽃바다》
- 힘은 세지만 {몸이 나서} 달리기나 걸기에서는 애를 먹는 태실이였다. 《한기석: 꽃바다》
- {몸이 나서} 교복 샤프의 겨드랑이 혼솔이 터질 것처럼 팽팽히 불어난 수옥이는 뽕보체질에 어울리지 않게 손으로 치마깃을 애교스레 비다듬으며 일어났다. 《백의남: 넓은 교실》



■ 겨레말 우체통

## 마음을 바로 가리키는 직지(直指)



■ 이세열 / 직지디제라티연구소장

『직지(直指)』는 현재까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로 인쇄된 책이다. 이 책은 1351년에 백운경한 스님이 원나라에 유학을 갔을 때 스승인 석옥청공(石屋淸拱) 선사로부터 『불조직지심체요절(佛祖直指心體要節)』 1권을 전수 받은 후, 공민왕 21년(1372)에 그 책을 바탕으로 부처와 조사(祖師)들의 계승(傳頌), 법어(法語) 등에서 선(禪)의 요체를 깨달는 데 필요한 내용을 가려 뽑아 엮은 책이다. 그리고 1374년 백운이 열반한 3년 후인 고려 우왕 3년(1377) 청주목 변두리 흥덕사(興德寺)에서 금속활자로 상하 2권 2책으로 찍어 냈다. 그런데 지금은 아쉽게도 하권 1책 만이 프랑스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 책이름은 백운화상이 『불조직지심체요절(佛祖直指心體要節)』을 초록하였다고 하여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尚錄佛祖直指心體要節)』·『불조직지심체요절(佛祖直指心體要節)』·『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백운직지심체(白雲直指心體)』·『백운초록직지(白雲抄錄直指)』·『백운직지심요(白雲直指心要)』·『직지심체(直指心體)』·『직지심경(直指心經)』·『직지심요(直指心要)』·『백운직지(白雲直指)』·『직지경(直指經)』·『직지(直指)』·『심요(心要)』 등 저자와 책이름이 합쳐지거나 줄인 이름으로 쓰이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본 겉표지와 판심(版心; 고서에서 책장이 중앙에서 접힌 곳)에 쓰여진 줄인 『직지(直指)』라는 책이름이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 특히 위의 책이름 중 『백운직지심요』·『백운초록직지』·『백운직지』라는 이름은 어느 판본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학자들간에 약서명으로 제안되고 있는 서명일 뿐이다.

『직지』에는 여러 책이름이 있지만 그 본래 '직지(直指)'라는 말은 『백암록(碧巖錄)』과 『전심법요(傳心法要)』와 같은 불가(佛家)의 '직지인심 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이라는 선종의 가르침에서 유래 되었다. 그 뜻을 새겨 보면 "참선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보면, 마음의 본성이 곧 부처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백운선사가 가려엮은 『직지』는 부처님과 조사스님들의 모든 가르침은 인간의 마음(心體)을 다른 매개체(媒介體)나 거리와 간격이 없이 곧 바로 가리킨 것 중에서 가장 고갱이(要緊)만 가려 뽑았다는 뜻이 된다.

그런데 위에 열거된 여러 책이름 중에 『직지경(直指經)』과 『직지심경(直指心經)』은 잘못 쓰이고 있는 이름이어서 바로 고쳐져야 한다. 특히 『직지경(直指經)』은 의학적적인 『직지경(直指鏡)』의 '鏡'자를 '經'으로 잘못 사용하면서부터 비롯되어 바로 고쳐져야 한다.

『직지심경(直指心經)』의 경우는 우리나라 고문헌에 사용한 전례가 없는데 각급 교과서와 언론은 물론 일부 스님들도 이 책이름을 사용하고 있어 정확하게 그 의미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직지심경』으로 쓰이게 된 연유는 1972년도에 프랑스 국립도서관 사서였던 박병선 박사가 책 전시회 출품목록을 작성하면서 원제목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을 사용하려 했으나 제목이 너무 길어 『직지심체요절』이라고 정하려던 중 책 중간쯤에 백지로 『직지심경』이라 써서 붙여져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부제라 여겨 원제목 대신에 사용하면서 부터이다. 그런데 현재는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본 『직지』 하권 서근(書根; 선장본 책을 찾기 편하게 하기 위해 밑부분에 쓴 서명) 1/3 우측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下直指心經』이라고 쓰여 있으나 당시 박병선 박사는 이는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했다. 그리하여 1972년 '책전시회'와 1973년 '동방의 보물' 등 프랑스에서 개최된 전시회 소식에 국내 언론에서도 당연히 『直指心經』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1901년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 1865~1935)은 『한국서지』 보유판(Supplément a La Bibliographie Coréenne)에서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이라고 원명 그대로 소개하였다.

『직지심경』이라는 책이름은 흥덕사 간행 금속활자본의 서근목제(書根墨題)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서근의 목제(墨題; 먹으로 쓴 책이름)는 처음부터 쓰인 것이 아니고 장서 검색의 편리를 위하여 후대에 와서 사용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직지심경』 책이름은 간행 당시의 목서(墨書; 먹물로 쓴 글씨)보다는 후대에 쓰여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經)'은 사서삼경이나 불교경전 또는 예수와 같은 종교 창시자나 성인들의 저서에 서만 쓰여져 『직지』와 같이 여러 종류의 책에서 가려내어 엮은 책에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특히 불경에서는 "내가 다음과 같이 들었도다"라는 '如是我聞'으로 시작되는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금강경(金剛經)』·『반야심경(般若心經)』·『대비심경(大悲心經)』과 같은 경전에서 사용된다. 그런데 『직지』의 내용은 경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史傳)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經'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조선시대에 유가의 경전인 『심경(心經)』이 왕실과 사대부에서는 많이 읽혀졌다. 이 책은 송나라 진덕수(眞德秀)가 경전과 도학자들의 저술에서 심성수양에 관한 격언을 모아 편집한 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6세기 중엽인 중종 말, 명종 초에 김안국(金安國)이 이를 존송하여 그의 문인 허충길(許忠吉)에게 전수한 데서 전해지기 시작했다. 이 책은 사서삼경의 고전과 도가의 학문 중에서 '심(心)'에 관한 내용을 모은 것이다. 그리하여 조선시대 중기 이후에 이러한 책을 접한 사람들이 마음공부와 유사한 『직지』에 『심경』을 붙여 『직지심경』으로 하지 않았나 한다.

『직지』에 대한 책이름은 분분하지만 올바른 뜻은 "부처님 이래로 율대의 부처와 뛰어났던 인도, 중국, 우리나라에서 못 사람들이 우려려 보았던 부처님에 대한 가르침이 높으신 분들의 말씀 중에서 그 고갱이를 가려 뽑고 보태어 펴낸 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금속활자본 『직지』는 "지금까지 이 세상이 생긴 이래 우리나라에서 쇠붙이를 녹여 만든 글자로 찍어낸 가장 오래된 책"이라고 해야 한다.

### ! 이세열 !

직지디제라티연구소장으로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 인쇄본인 『직지』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한서예문지』, 『직지』, 『잃어버린 직지를 찾아서』, 『규장각지』, 『역사속의 초경약수』, 『베스트셀러 100년사』, 『직지디제라티』 등이 있다.

## 영화 감상 행복한 사전 만들기

■ 최준호 / 겨레말큰사전 책임연구원

"저 사람 우리 부서 사람인데, 사전턱하지 않아요?"  
"오타쿠턱해보이는데?"

영화 <행복한 사전>은 전부 출판사 사전편집부에서 퇴임하는 사전 편집자가 자신을 대신할 직원을 찾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바쁘게 돌아가는 출판사 신관 건물에서 사전 편찬에 맞는 인물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영화에 등장하는 사전 편집자들은 모두 괴상해 보인다.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서 올림말 목록을 대조해도 지루해 하지 않는가 하면, 할아버지 나이의 편집자가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말을 수집하기 위해 단체 미팅에 동행하기도 한다. 항상 '용례 수집 카드'라는 것을 들고 다니면서 시도 때도 없이 새로운 말이나 용법을 발견하면 꺼내서 적어 놓는다. 데이트할 때마저도, 그들은 항상 사랑에 빠진 청년의 얼굴을 하고 있다.

"대신 조건이 있다. 앞으로 '사전'이란 이름이 붙는 건 모두 사전편집부에서 만드는 걸로... 패션 사전이라든가, 요리 사전이라든가... 그렇지. 아이들 대상의 괴수백과사전도 잘 팔리겠네."  
"하겠습니까."

국어사전 출판은 상업적인 가치와 거리가 멀다. 전부 출판사 영업부장은 당장 돈이 되지 않으면서 인력이 투입되는 사전 기획을 취소하려한다. 이에 주인공은 영업부장을 설득하려 찾아가는다. 영업부장은 거절의 의미로 말도 안되는 조건을 내걸지만, 주인공은 '하겠다고 한다. 이제 와서 그만두기엔 사전 편찬 일이 너무나도 좋아져버린 것이다. 사전 편집자란, 사랑에 빠진 사람이란,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니까 그만둘 수도 없다.

"당신은 사전 만드는 일에 잘 어울리네요."  
"어디가요?"  
"정리정돈은 사전 편집자에게 필요한 재능이에요."

사전 편집부에 패션잡지를 만들던 젊은 여직원이 배속되어왔다. 화려한 네일아트에 술도 삼페인밖에 안마시던 그녀가 사전편집부 사람들과 동화되어가는 과정이 재미있다. 너무나 내성적인 주인공도 그렇고, 처음엔 사전 편찬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인물들이 하나 둘 모여서 사전을 완성해가는 모습이 재미있다.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사전은 혼자서 만들 수 없다. 구성된 하나하나가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으면 수십만 개의 원고를 하나의 사전으로 묶을 수 없다. 어느 한 명이 우수하다고 드러나지 않지만, 누군가 실수를 하면 눈에 띄는 것이 사전이니까.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좋아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 좋아하는 것을 평생 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것을 열정적인 동료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나는 지금 <행복한 사전>을 만들고 있는가?